

문화자본이 정치정보 획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근영**

요약 본 연구는 일상에서 문화적인 요소가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2014년 6.4 서울시장 선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이 소유한 다양한 문화자본의 정도가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한다. 첫째, 개인이 가진 문화자본의 양이 많을수록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정치정보를 획득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둘째, 문화자본의 종류 중, 문화적 선호와 문화적 소양과 같이 자신에 대한 인지적인 차원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온라인 뉴스, TV, 신문과 같이 주로 공식적인 뉴스 중심의 매체를 통해 정치정보를 얻고 있다. 셋째, 매체의 종류를 크게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로 구분했을 때, 다양한 종류의 문화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통 미디어 보다는 뉴미디어를 정보획득 수단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일상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정치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발견이지만, 더 나아가 기존의 정보격차의 논의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문화자본, 정치정보, 뉴미디어, 문화와 정치, 미디어 선호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nfluence of Cultural Capital on the Political Information Acquisition

Keun-Young Park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obability that cultural factors in everyday life affect individuals' political behaviors.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2014 Seoul mayoral election, it analyzes how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s have various cultural capital influences their types of political information acquisition through media. The outcomes suggest following three. First, the more cultural capital individuals have, the more active they are in obtaining political information using diverse media. Second, those who mark high score in the self-cognitive area of cultural capital, such as cultural preferences and cultural tastes, tend to gather political information throughout formal news-oriented media such as on-line news, TV, and newspapers. Third, when types of media are classified into old and new, those who have a variety of cultural capital are likely to prefer new media as their major source of political information acquisition.

Keywords: cultural capital, political information, new media, culture and politics

2015년 4월 29일 접수, 2015년 4월 30일 심사, 2015년 6월 10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55285)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kparkatgg@gmail.com)

I. 서론

지난 100여 년간 ‘문화’ 만큼 여러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포괄적인 관심을 받았던 주제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20세기 중반에 문화의 개념은 이미 150개 이상의 독특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었다(Kroeber, et al., 1952). 이는 문화 또는 문화적 요소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회과학의 세부 학문영역에서 폭넓게 인지되고 있었으며, 그 만큼 일상에서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중 사회학은 문화 연구의 중요성을 가장 일찍 인지한 학문이었다. 베버(Weber)나 뒤르케임(Durkheim), 짐멜(Simmel)과 같은 고전 사회학자들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요소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현대 사회학에서도 문화사회학이 수많은 분과학문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가 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일찍이 문화를 개인에게 귀속된 취향이나 선호에 관한 ‘상수(Constant)’ 정도로 취급하였던 경제학에서도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부터 문화적 요소를 주요 변수로 취급하는 ‘문화경제학(Cultural Economics)’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이상호, 2009; Swedberg, et al., 2001). 이밖에 행정학, 언론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의 개별 학문들이 문화의 영향을 특화 시킨 분과학문을 개발하여 심화된 연구주제로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문화적 요인을 인간 행동에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영역들이 남아있는데, 특히 정치학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최진우, 2012). 정치학이 문화적 요소를 다른 인접 사회과학에 비해 소홀히 다루는 경향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정치의 전자에, 문화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해왔던 서양 정치학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홍성민, 2012).

하지만 ‘정치’의 의미를 넓게 보면, 인간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반규칙을 만들고 수정하는 활동이며, 따라서 정치학 역시 여타의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또는 사회적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정치학이 문화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헤이우드, 2014; 장정운, 2012).

물론 지금까지 정치와 관련된 연구에서 문화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왔던 것은 아니다. 사실 정치학이나 또는 정치를 주제로 하는 다른 학문에서 정치와 문화의 접점을 찾아 보려했던 노력은 적지 않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시도로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치학에서 문화를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연구는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와 관련된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문화란 어떤 사회가 지닌 문화의 다양한 측면 중, 정부의 구성 및 관리 방식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된 부분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Beer, 1958). 이를 달리 표현하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어 있는 ‘정치적 지향(Political Orientation)’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정치지향이란 특정한 정치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일정한 행동성향을 말한다(헤이우드, 2014). 정치문화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지향을 분석하여 향리적 정치문화(Parochial Political Culture)나 참여적 정치문화(Participant Political Culture)와 같은 이름으로 각 정치 단위의 문화적 특성을 규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문화의 개념은 우선 그 형태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어떻게 여러 개인 수준의 정치지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어떻게 제도나 다른 정책의 속성들이 상호작용하여 특정 정치적 성향을 생산하는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50여 년 동안 실증적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isinger, 1995;

Johnson, 2003).

두 번째로 문화와 정치의 접점을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에 관한 연구이다. 문화를 일상의 행동에 지침이 되는 기호와 상징의 체계로 정의하고, 정치는 통치와 권력 분배에 관한 기술로 본다면, 문화에 권력의 문제가 개입할 때, 그 문화는 정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채오병, 2012). 그런 정치화된 문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데올로기이다. 원래 이데올로기란 사람들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 혹은 세계관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내면화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권력의 요소가 개입할 경우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기 쉽다(Smith, 2001). 예를 들면 맑스가 언급한 산업화 시기의 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분배방식을 정당화하고 부르주아들의 계급적 이해를 옹호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헤게모니는 이데올로기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와 같이 수용자들의 저항을 수반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람시, 1999). 사회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헤게모니의 성격은 무엇인지, 또는 지배적 위치를 놓고 이데올로기들은 어떻게 경쟁하는지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소개한 문화와 정치의 학문적 결합방식은 문화 또는 정치 중, 하나의 주요 연구 대상을 미리 설정해 놓고 나머지 하나를 부가적으로 덧붙인 형태로서 사회과학연구 방법의 큰 분류방식인 미시/거시의 기준에서 평가한다면 ‘거시적 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 사회나 국가 전체의 정치문화적 특성이나, 대다수의 구성원들에게 집단차원에서 적용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루기는 용이하지만, 그러한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차원에서 어떻게 문화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광범위한 문화의 정의와 속성 중에서 ‘사회 구성원들에

게 공유된 의식이나 당연시되는 규범’ 정도의 일차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문화만을 상정했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속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문화와 정치의 접점을 찾아보려했던 기존 연구들이 지나치게 거시적이거나 추상적인 차원의 대상에만 주목해왔기에 실증적인 방법을 적용시키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적 영역인 정치와 사적 영역인 문화를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 수준에서 최초로 결합했다고 평가되는 부르디외(Bourdieu)의 연구(홍성민, 2012)에 주목한다. 특히 부르디외 이론의 핵심 개념인 ‘문화자본’이 다양한 정치활동에 가장 직접적인 동인(動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정보’ 획득 방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요소가 사회 전체의 거시적인 차원이 아닌, 개인 행위자의 차원에서도 정치적 요소와 일정한 규칙을 통해 결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상의 다양한 정치적 행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증하려 한다.

II. 연구의 주안점 및 이론적 배경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지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문화와 정치의 상관성을 다룬 연구 중에서, 문화와 정치 개념을 조작화(Operationalization)하여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들로 변환한 후, 그 관련성을 논증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조사의 발견이나 주장들을 근거로 가설을 세운 후 이를 검증해보는 가설 검증적 연구보다는, 문화와 정치의 개념을 ‘문화자본’이나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 등의 측정 가능한 변수로 전환하여 일차적으로 두 변수 간의 관련성 유무부터 파악해보는 탐색적인 연구를 지향할 것이다. 즉, 개인이 가진 문화자본의 양이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다양한 문화자본

의 종류 중에서 특정 문화자본을 소유한 것이 정치정보를 획득하는 방식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자본’과 ‘정치정보’가 변수로서 지니는 일반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또한 이들 변수가 문화연구와 정치학 내부에서 각각 어떠한 의미로 통용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자본과 정치적 행위가 개인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 실증적 선행연구가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탐색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3가지 영역의 관련 연구를 소개하도록 할 것이다.

1. 문화자본과 정치정보

본 연구에서 문화 영역의 측정지로 사용될 ‘문화자본’은 사실 대단히 복합적인 개념이기에 한두 개의 특성만을 강조하여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부르디외(2005)가 그의 저작에서 열거한 다양한 문화자본의 개념들 중에서 공통적인 속성만을 종합한다면, 문화자본이란 경제자본 즉, 화폐나 재화와 같이 특정 형태의 외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자본과 마찬가지로 권력수단으로 작동하여 계급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초래, 유지, 강화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고급 예술과 관련된 객관적 지식이나 기술 등을 의미하거나, 또는 미적 대상에 대한 취향이나 태도와 같이 개별 행위자에게 체화된 속성을 말하기도 하며, 대학과정의 학위를 획득하는 것과 같이 제도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Smith, 2001). 이처럼 일상과 관련된 문화의 다양한 속성들을 대표할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문화자본은 실증적 연구에서 빈번하게 개인이 가진 문화적 속성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이유 때문에 문화자본의 개념은 종종 격렬한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는 부

르디외가 문화자본에 대한 새로운 저작을 집필하면서 그 개념을 일관되게 정의하기 보다는, 상당히 다른 개념까지도 포괄적으로 범주 안에 포함시켰고, 따라서 후학들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문화자본을 개념화하거나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이호영 외, 2006). 미국에서는 문화자본을 구분하고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 비교적 일찍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특히 부르디외의 이론을 미국 사회학에 적극적으로 소개한 디마지오(DiMaggio)의 연구가 출발점이 되었다. 디마지오는 문화자본을 태도나 관심(Attitude/Interest), 행동(Activity), 정보(Information)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측면에 대해 고급 예술 장르와 관련된 질문 문항들을 작성하여 지수를 구성하였다(DiMaggio, 1982). 아샤펜버그(Achaffenburg)와 모스(Maas)는 연구자들이 문화자본을 측정할 때, 너무 고급 취향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 예를 들면 오페라를 즐기거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행위 등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대신 성인이 되기 전 연령대에서 고급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을 강조한다(Achaffenburg, et al., 1997). 반면 Kalmijn, et al.(1996)나 De Graaf et al.(2000)은 문화자본은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측정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보다는 그들 부모의 문화활동 참여 빈도나 독서량 등의 변수들이 더 유용한 측정대상임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문화자본 연구의 대부분이 개인의 ‘교육 수준’만을 근거로 문화자본을 측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 청소년 실정에 맞는 문화자본 지수를 개발해보려는 시도가 나타났으며(이명진 외, 2008), 최근 최셋별 외(2013)의 연구에서는 디마지오의 주장에 근거하여 모든 연령대에 적용가능한 문화자본 측정 지수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셋별 외(2013)의 지수에서는 문화자본을 (1)고급문화에 대한 태도

나 스스로의 문화적 소양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 ‘문화 소양’, (2)문화관련 행사에 실제로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고려하는 ‘문화 활동’, 그리고 (3)고급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도와 친숙도를 나타내 주는 ‘문화 지식’으로 구분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오랜 논의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화자본의 개념은 개인의 일상에서 문화와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측정방식에 있어서도 신뢰성과 타당성을 꾸준히 검증받아 왔다. 따라서 문화자본은 측정 가능한 개인차원의 다양한 문화적 속성을 파악하고자 했던 본 연구에 매우 적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치의 영역을 개념적으로 대표하게 될 ‘정치정보’의 획득량은 사실 그 자체로는 개인의 정치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정보의 획득량이 개인이 가진 정치지식의 양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학에서 ‘정치지식’은 다양한 다른 정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즉 정치지식이 있어야만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며(이갑윤, 2011), 선거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권혁남, 2012). 더 나아가 정치지식은 개인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 즉 ‘개인 스스로가 정치활동에 참여할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홍원식, 2012). 따라서 개인이 소유한 정치지식은 ‘정치’ 또는 ‘정치활동’의 개념을 정당가입이나 투표참여 등의 몇몇 특정 행위에만 국한시키지 않는 폭넓은 의미의 정치활동 선행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지식은 측정방식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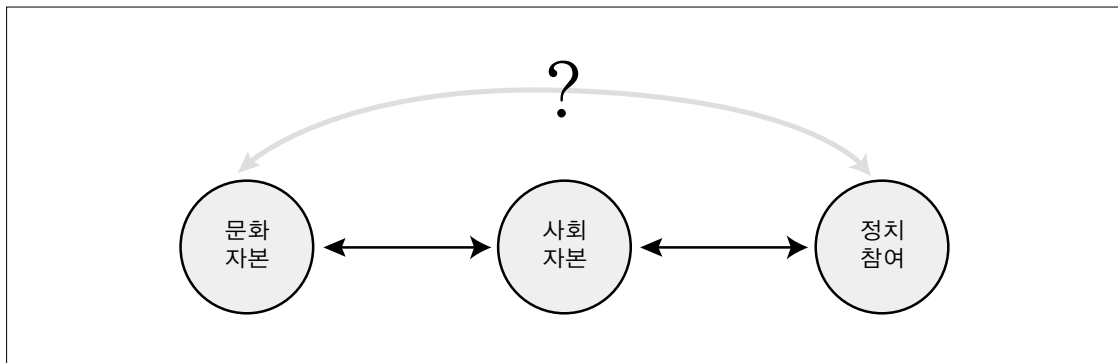
동의된 지표(Indicator)나 지수(Index) 등이 부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정이 매우 어렵다. 또한 특정한 정치지식이 모든 종류의 정치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정치지식을 측정해야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지식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치행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측정변수로 사용되기에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정치정보의 획득량의 경우, 오늘날 정치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미디어나 주변 사람의 접촉을 통한 것 외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획득된 정치정보의 양이나 그 방식을 측정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우리는 정치정보 획득량의 증가가 정치지식의 증가와 중간에 어떠한 매개변수도 상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경험적, 논리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개인차원의 정치적 속성을 대표하는 변수를 요구하는 경우, 정치지식 변수 대신 정치정보 획득량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측정에 있어서의 복잡한 문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정치지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치행위의 선행변수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¹⁾

2. 개인적 차원에서 문화와 정치의 관련 가능성

그렇다면 우리는 왜 충분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도 개인적 차원에서 정치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일까? 다음 3가지 영역에서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문화와 정치가 개인의 일상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치학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개인이 가진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직접

1) 앞서 강조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개인적 차원에서 문화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연결하는 가교(架橋)의 존재 여부와 그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따라서 ‘획득된 정치정보량이 개인의 정치적 활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와 같이 구체적인 정치행위에 관한 질문들은 본 연구가 다루는 영역 밖에 있다.



〈그림 1〉 문화자본, 사회자본, 정치참여의 관련성

적인 관련성에 대해 연구해왔다. 사회자본의 개념은 사회의 구성원 중 특별한 조건을 가진 일부만을 포괄하고 나머지는 배척하는 ‘구속사회자본’의 경우와, 사회적 격차를 초월하여 전체 구성원들을 포용하려는 ‘연결사회자본’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Putnam, 2000), 어떤 경우이든 효과적인 시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왔다. “사회자본이 강하면 민주주의가 만개한다”는 잘 알려진 Putnam(2000)의 주장처럼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유대관계가 그들 사이의 소통과 정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이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관련성 연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우선 문화자본의 개념을 현대 사회학의 중심 과제 중 하나로 정착시켰던 부르디외(Bourdieu)는 자본의 종류를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 등으로 구분하고,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특정 조건 하에서 경제자본을 매개로 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연구하였다(최셋별, 2012). 또한 Erickson(1996)의 경우 개인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은 그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의 다양성에 근거함을 증명함으로써 문화자본이 사회자본과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동시에 고려하면 논리적으로 문화자본과 정치참여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사회자본

과 정치참여의 상관성이 밝혀졌고,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정(+)적 관계가 입증되었다면, 세 개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문화자본과 정치참여의 관련성을 상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참조)

둘째, 기존 문화자본과 정보격차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문화와 정치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진 조건의 차이로 인해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 가능성뿐만 아니라, 획득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향유하는 데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김문조 외, 2002).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발생케 하는 개인의 속성을 주로 교육수준이나 가계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정보격차의 보다 결정적인 요인을 발견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차적인 변수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는데 문화자본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문화자본과 정보격차를 연구해왔던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개인이 문화자본을 많이 소유할수록 정보를 탐색하거나 수용함에 있어 더 적극적이며, 획득된 정보 역시 더 다양하게, 또는 더 가치 있게 활용한다는 점이다(서우석 외, 2006; 이세용, 2002; 이호영 외, 2006; 이호규, 2009).

본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치행동 변수나 정치

지식 측정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에는 바로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결과를 조금이나마 더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정보와 문화 자본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지만, 이를 조금만 변환하여 막연한 의미의 정보가 아닌 ‘정치와 관련된 정보’로 특화시킬 경우에도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개인차원에서 문화와 정치적 요소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최근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들의 효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96년부터 Animating Democrac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왔다(조현성 외, 2014). 이 프로그램은 지역 거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활동의 참여확대를 목표로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였으며, 지금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²⁾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이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고경자, 2009; 성도의 외, 2012). 교육심리학에서 통용되는 ‘자기효능감’이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시도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성도의 외, 2012). 이러한 의미가 비록 앞서 언급했던 ‘정치효능감’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심리학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단체 활동에 있어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결국 정치적인 행위와도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자료와 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간 중 수집된 [서울시장 선거 패널자료]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 지역, 성별 변수를 기준으로 할당표집을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은 2014년 3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처음 조사에서 1,860명의 응답자로 시작하여, 마지막 조사에서는 1,066명이 설문을 완료했다. 이 조사는 특정 시장 후보를 어떤 이유로 지지하는지, 또한 지지후보를 유지,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정치커뮤니케이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지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자본 관련 문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문화자본과 정치정보 획득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최적화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자본’의 양과 매체를 통한 ‘정치정보’의 획득량을 두 개의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우선 문화자본의 양의 경우에는 DiMaggio(1982), 최셋별 외(2013)의 연구 등에서 제시되었던 ‘예술교육의 경험’, ‘문화의 향유’, ‘문화적 선호’, ‘문화적 소양’ 등의 4가지 영역을 기본으로 하되, 부르디외 저작 이후부터 꾸준히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왔던 ‘부모의 교육수준’을 더하여 총 5개 범주에서 측정하였다³⁾.

첫 번째 범주인 예술교육의 경험은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1)클래식 음악의 악기, (2)회화나 미술감상, (3)그밖에 문화/예술 영역에 대해 정규(학교) 과정 이외의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각각 질문하

2) 전미 예술연합회(AFTA) 웹페이지(<http://www.americansforthearts.org/>)참조

3) 부모의 교육수준이 문화자본 측정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장미혜(2002)의 글을 참조

여 ‘그렇다’고 응답했을 경우 각 1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 변수는 0에서 3점의 값을 취할 수 있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18과 1.16을 기록했다. 두 번째 범주인 문화 향유의 경우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나 기타 문화 관련 기관의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1)박물관(모든 종류의 상설 박물관), (2)미술 전시회(그림, 조각, 공예 등등), (3)대중 음악 공연(콘서트 등등), (4)무용(전통 무용, 발레 등등), (5)클래식 음악/오페라 공연, (6)영화, (7)연극, (8)뮤지컬, (9)전통예술 공연(사물놀이, 국악, 판소리 등등) 등의 9개 영역의 문화향수 대상을 설정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각 영역의 문화향유 경험이 있는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했다. 따라서 전체 총점은 0에서 9점까지의 범위를 가질 수 있으며, 응답자들의 평균은 4.09, 표준편차는 2.47을 나타냈다. 세 번째 범주인 문화적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관련 직업군을 (1)클래식 음악가(성악, 기악, 작곡 등), (2)작가(시인, 소설가 등), (3)미술가(화가, 조각가 등), (4)무용가(발레, 현대무용, 한국 무용 등)의 4개 영역으로 나눈 후, 각각의 직업군에 대하여 ‘매우 싫어한다(1점)’부터 ‘매우 좋아한다(5점)’의 척도를 가진 질문을 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개인 평균값들의 전체 데이터 평균은 3.35, 표준편차는 0.62을 나타냈다. 네 번째 범주인 문화적 소양에 관한 변수는 DiMaggio(1982)가 사용했던 10가지 관련 문항에서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다”와 같이 스스로에 대한 문화적 자질과 소양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을 선별하여 질문한 후, ‘전혀 동의 못함(1점)’에서부터 ‘매우 동

의함(5점)’의 5가지 단계의 점수를 부여한 후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개인 평균 점수들의 전체 응답자 평균은 3.48, 표준편차는 0.59를 나타냈다.⁴⁾ 끝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은 5단계(중졸 또는 그 이하 = 1, 고졸 = 2, 전문대졸 = 3, 대졸 = 4, 대학원졸 이상 = 5)로 측정된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평균 = 2.32, 표준편차 = 1.13).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요 분석 대상을 이루는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량’을 측정하기 위해 우선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전통 미디어 3종(TV, 신문, 라디오)과 뉴미디어 7종(온라인 뉴스, 온라인커뮤니티(카페 등), 블로그,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미디어를 통해 지난 서울시장 선거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 관련 정보를 얻었는지를 ‘전혀 얻지 않음(1점)’에서부터 ‘매우 많이 얻음(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응답자 별로 2차 조사(2014년 4월 17일)에서 4차 조사(2014년 5월 28일) 동안의 응답 평균⁵⁾을 해당 미디어를 통한 선거 및 정치 정보획득 양으로 정하였다.

그밖에 통제 변수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⁶⁾ 등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포함시켰다. 또한 선거기간 동안 미디어가 아닌 대인 접촉을 통해 선거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주변사람들과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하는지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문의하였다. ‘대면정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변수는 본 연구의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선거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일종의 통제변수 차원에서 사용되었다.

4) 문화자본 측정 변수들 중에서 ‘예술교육의 경험’이나 ‘문화 향유’ 등의 경우, 특정 대상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는가를 측정하는 Count Variable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문화적 선호’나 ‘문화적 소양’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유사 속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지수를 구성했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를 신뢰도 측정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적 선호’의 경우에는 0.798, ‘문화적 소양’의 경우에는 0.782의 값을 얻었다.

5) 1차 조사에서는 전통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량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5차 조사에서는 정치정보 획득량에 관한 문항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에서 4차에 걸쳐 조사된 정보획득량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6) 나이는 실제 나이로 계산하였으며 평균 41.89세, 표준편차 11.72세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6단계로 측정하였다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재학, (5)대학교 졸업, (6)대학원 재학). 평균은 4.78, 표준편차는 0.85를 나타냈다. 소득수준은 월 가구 소득을 말하며 (1)199만원 이하, (2)200-299만원, (3)300-399만원, (4)400-499만원, (5)500-599만원, (6)600-699만원, (7)700-799만원, (8)800만원 이상 등의 8단계로 구분하였다. 평균은 4.29, 표준편차는 1.94였다.

〈표 1〉 5가지 문화자본 측정 영역의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

[예술교육의 경험]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과과정 이외 예술교육 경험	N	평균	표준편차
클래식 음악의 악기	1066	0.38	0.49
회화나 미술 감상	1066	0.42	0.49
그밖에 문화/예술 영역	1066	0.39	0.49
Total	1066	1.18	1.16

[문화의 향유] 지난 1년간 문화 및 예술활동 관람 경험	N	평균	표준편차
박물관(모든 종류의 상설 박물관)	1066	0.57	0.50
미술 전시회(그림, 조각, 공예 등등)	1066	0.52	0.50
대중음악 공연(콘서트 등등)	1066	0.52	0.50
무용(전통 무용, 발레 등등)	1066	0.16	0.36
클래식 음악/오페라 공연	1066	0.30	0.46
영화	1066	0.94	0.23
연극	1066	0.47	0.50
뮤지컬	1066	0.41	0.49
전통예술 공연(사물놀이, 국악, 판소리 등등)	1066	0.20	0.40
Total	1066	4.09	2.47

[문화적 선호] 특정 문화예술 직업군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	N	평균	표준편차
클래식 음악가(성악, 기악, 작곡 등)	1066	3.44	0.80
작가(시인, 소설가 등)	1066	3.43	0.82
미술가(화가, 조각가 등)	1066	3.32	0.78
무용가(발레, 현대무용, 한국 무용 등)	1066	3.21	0.73
평균	1066	3.35	0.62

[문화적 소양] 자신의 문화적 소양에 대한 평가	N	Mean	표준편차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다	1066	3.42	0.76
사람들은 나를 좋은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 한다	1066	3.50	0.73
나는 더 좋은 취향을 가지려 노력 한다	1066	3.79	0.77
나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 한다	1066	3.61	0.83
나는 물질적 부(富)보다는 문화와 예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1066	3.05	0.94
평균	1066	3.48	0.59

[부모의 교육수준] 5단계로 나눈 부모의 교육수준	N	Mean	표준편차
아버지의 교육수준	1066	2.58	1.30
어머니의 교육수준	1066	2.05	1.11
평균	1066	2.32	1.13

IV.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3단계로 나누어진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원상관분석을 통해 각각의 개별 문화자본 측정변수와 미디어별 정보 획득량 변수들 사이의 일차적인 관련성을 살펴봤다. 다음으로는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각각의 개별 변수가 아닌 집단 차원에서 문화자본 측정변수들과 미디어별 정보 획득량 변수들의 관련성을 따져보았다. 마지막 단계의 분석에서는 K-mean 군집분석을 통하여 미디어를 소비하는 유형을 네 개로 분류한 후, 각각의 유형에 속할 확률이 문화자본 변수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2〉는 5개 문화자본 측정 변수, 3개 전통 미디어와 7개 뉴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량 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로 사용하게 될 대인 접촉을 통한 정치

정보획득 변수 사이의 이원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변수군들에 음영을 넣어 블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상관계수 값이 0.5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관련성을 보인 ‘부모의 교육’과 ‘TV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들의 관계가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이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첫째, 뉴미디어 계통의 매체들을 통한 정치정보량 사이에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물론 그러한 경향은 3가지 전통 미디어 사이에서도 발견되지만, 단순히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뉴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량 사이의 상관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머지 모든 종류의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은 양의 정치정보를 얻

〈표 2〉 문화자본 변수와 미디어를 통한 정보획득 양 사이의 이원상관계수

	예술교육	문화향유	문화선호	문화소양	부모교육	(온)뉴스	(온)커뮤	블로그	카톡	밴드	페이스	트위터	TV	신문	라디오	대면정보
예술교육	1	.422	.224	.264	.338	.158	.298	.305	.274	.268	.310	.281	.121	.219	.188	.251
문화향유		1	.303	.315	.203	.229	.396	.414	.388	.395	.377	.373	.181	.329	.320	.353
문화선호			1	.509	.069	.193	.231	.205	.187	.178	.211	.201	.134	.174	.195	.213
문화소양				1	.113	.225	.224	.218	.222	.207	.239	.210	.216	.268	.234	.268
부모교육					1	.095	.120	.147	.109	.155	.167	.145	.035	.115	.081	.085
(온)뉴스						1	.561	.496	.412	.303	.431	.409	.513	.370	.335	.479
(온)커뮤니티							1	.859	.706	.609	.643	.647	.365	.407	.499	.520
블로그								1	.790	.716	.716	.701	.378	.428	.563	.508
카톡									1	.792	.732	.704	.415	.405	.575	.525
밴드										1	.677	.690	.323	.379	.578	.428
페이스북											1	.777	.271	.321	.458	.434
트위터												1	.273	.359	.524	.471
TV													1	.595	.449	.462
신문														1	.499	.486
라디오															1	.417
대면정보																1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 미디어를 통한 정보획득과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획득의 양에서도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모든 매체들 사이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블록들과 비교해 보면 뉴미디어와 전통 미디어를 통한 정보 획득량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통 미디어의 라디오를 통한 정보 획득량은 뉴미디어의 거의 모든 매체를 통한 정보 획득량과 강한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정보 획득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전통 미디어나 뉴미디어를 특별히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한 종류의 가용 미디어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문화자본의 양과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 사이의 상관관계는 명쾌한 결론을 내릴 만큼 확실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측정된 모든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몇몇 세부적인 상관계수는 비교

〈표 3〉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elation Analysis) 결과

	표준화된 정준변형계수 (Standardized Coefficients of Canonical Variates)					정준부하량 (Canonical Loadings)				
	1	2	3	4	5	1	2	3	4	5
예술교육	-0.268	-0.356	-0.323	0.612	-0.824	-0.661	-0.279	-0.033	0.449	-0.532
문화향유	-0.678	-0.349	-0.164	-0.733	0.417	-0.909	-0.200	-0.085	-0.298	0.194
문화선호	-0.098	0.077	-0.227	0.832	0.799	-0.489	0.377	-0.156	0.590	0.496
문화소양	-0.237	0.972	0.241	-0.327	-0.506	-0.579	0.791	0.104	0.043	-0.162
부모교육	-0.064	-0.146	1.024	0.137	0.208	-0.327	-0.222	0.893	0.215	0.012
정치정보_온)뉴스	0.001	0.483	0.609	0.149	0.691	-0.513	0.460	0.154	0.289	0.291
정치정보_온)커뮤	-0.218	-0.110	-0.985	0.878	0.319	-0.802	-0.145	-0.293	0.270	0.176
정치정보_블로그	-0.066	-0.793	0.503	-0.457	-0.184	-0.825	-0.261	-0.080	0.026	0.071
정치정보_카톡	0.090	0.042	-0.911	-0.763	-0.332	-0.771	-0.105	-0.237	-0.188	-0.046
정치정보_밴드	-0.223	-0.292	0.826	-0.412	0.514	-0.773	-0.226	0.137	-0.234	0.158
정치정보_페이스	-0.303	0.258	0.529	0.905	-0.873	-0.793	-0.099	0.146	0.332	-0.189
정치정보_트위터	0.011	-0.263	-0.073	0.165	0.255	-0.757	-0.177	0.008	0.166	0.095
정치정보_TV	0.191	0.419	-0.228	0.136	-0.540	-0.412	0.601	-0.095	-0.128	-0.222
정치정보_신문	-0.364	0.079	0.488	-0.465	-0.325	-0.688	0.353	0.144	-0.339	-0.186
정치정보_라디오	-0.069	0.478	-0.264	-0.098	0.727	-0.646	0.286	-0.145	-0.221	0.379
정치정보_대면	-0.298	0.199	-0.421	-0.017	-0.169	-0.737	0.286	-0.293	-0.033	-0.082
	CV1	CV2	CV3	CV4	CV5					
CC	0.538	0.181	0.124	0.101	0.087					
Wilk's L	0.665	0.935	0.967	0.982	0.992					
F	8.163	1.770	1.308	1.177	1.140					
df	55	40	27	16	7					
P-value	0.000	0.002	0.132	0.278	0.335					

적 강한 관련강도를 나타내는 경우(e.g., ‘문화향유’와 ‘블로그’ = .414)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문화자본 측정변수와 사용하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상관계수의 크기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으며, 그 절대적인 수치 역시 정확한 비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두 변수군(群) 사이의 관계를 단정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변수군으로서의 문화자본의 양과 미디어를 통한 정치 정보획득량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5개의 변수와, 총 11개의 신/구미디어 및 대면접촉을 통해 얻는 정치정보 획득량 측정변수들 사이의 집단간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5쌍의 정준변형⁷⁾(또는 조합점수, CV: Canonical Variate)을 추출하였다. <표 3>의 하단부는 이들 대응하는 정준변형(CV)들 사이의 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첫 번째($p < 0.001$)와 두 번째($p < 0.002$)에 해당한다. 이들 두 개의 정준상관관계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표 3>에서 정준변형(조합점수)에 대한 각 변수들의 공헌도를 나타내는 정준부하량(Canonical Loading)의 값들 중, 절대값이 0.3 이상으로 큰 경우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우선 가장 큰 정준상관계수 값을 나타냈던 첫 번째 관계가 제시하는 것은 매우 단순 명료하다. 모든 종류의 문화자본 측정치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미디어이든 그 미디어를 통해 정치정보를 획득하는 정도 역시 낮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가진 문화자본의 양과 매체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에 대한 욕구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자본 관련 변수 중에서는 ‘문화향유’ 변수가 절대값이 0.9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정치정보 획득량 변수들 중에서는 온라

인 커뮤니티 활동과 블로그를 이용하는 경우들의 절대값이 0.8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두 번째 정준상관관계가 나타내는 것은 ‘문화선호’와 ‘문화소양’ (특히 ‘문화소양’) 변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뉴미디어인 온라인 뉴스와 전통 미디어인 TV와 신문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치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자본 측정 변수들 중에서 ‘문화적 선호’와 ‘문화적 소양’의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다르게 실제 사실 여부를 바탕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심리적 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즉, 자신의 문화적 소양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TV나 신문, 그리고 온라인 뉴스를 통해 상당히 공식화된(Formal) 정보를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준상관분석은 동일한 변수군에서 서로에 대해 독립적인 정준변형(조합점수)을 추출해 내며, 또한 그들 사이의 상관계수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많은 변수들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때 보다 의미있는 관계를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박광배 2004; 이영준, 2002).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단지 2개의 정준상관계수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획득하였으며, 나타난 결과 역시 너무 단출하거나 아니면 폭넓은 분석대상의 극히 일부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변수군들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그 변수군들에게 영향을 주는 제 3의 변수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변형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자료의 단순화 및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항로지스틱 분석에 앞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정치정보 획득량 변수들에 대해 K-mean 군

7)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준상관분석의 세부 용어들이 명확하게 정립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영준(2002)이 제시한 용어를 따르기로 한다. <표 3>에서 제시된 ‘표준화된 정준변형계수’는 ‘표준화된 정준가중치(Standardized Canonical Weights)’을 말하며, 연구자에 따라서는 그냥 표준정준상관계수(Standardized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부르기도 한다.

〈표 4〉 K-mean 군집분석(K = 4)에 의한 각 군집의 특성

군집 번호	1	2	3	4	변수별 평균	SD
정치정보_(온)뉴스	2.67	4.06	3.53	3.49	3.35	0.85
정치정보_(온)커뮤니티	1.47	3.80	3.06	2.28	2.47	1.03
정치정보_블로그	1.27	3.63	2.74	1.91	2.20	0.99
정치정보_카톡	1.26	3.61	2.57	1.66	2.08	0.99
정치정보_밴드	1.09	3.11	1.94	1.29	1.68	0.89
정치정보_페이스북	1.32	3.50	2.64	1.48	2.04	1.03
정치정보_트위터	1.15	3.40	2.34	1.38	1.87	1.00
정치정보_TV	2.61	4.04	3.26	3.72	3.33	0.88
정치정보_신문	1.74	3.86	2.79	3.48	2.86	1.13
정치정보_라디오	1.38	3.35	2.15	2.17	2.12	0.95
정치정보_대면	1.79	3.46	2.74	2.59	2.53	0.90
각 군집의 크기	316	171	262	317	총합=1,066	

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mean 군집분석은 각 군집의 수를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군집의 수와 상관없이 각 군집 간의 변수들 평균값의 차이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Norūsis, 2003). 따라서 각 응답자들을 주어진 변수들의 분포를 기준으로 가장 차별성 있는 군집으로 분류한다. 본 분석에서는 응답자들을 정치정보 획득량과 획득 방식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군집에 속한 응답자들의 변수별 평균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⁸⁾. 우선 첫 번째 군집은 모든 미디어 변수에서 전체 데이터 평균보다도 확연히 낮은 점수를 보인 사람들의 집단이다.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모든 매체를 통해 정치정보를 얻는 양이 현저하게 적은 정치 무관심자들이 이 군집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반대로 모든 변수의 평균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들의

군집이다. 이들은 뉴미디어뿐만 아니라 전통 미디어를 통한 정보 획득량이 가장 많으며,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과 정치나 선거 관련 대화를 가장 자주 나누는 적극적인 정치정보 습득자들이다. 세 번째 군집은 뉴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량에서는 두 번째로 많지만, 전통 미디어를 통한 정보량은 전체 평균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며, 네 번째는 반대로 전통 미디어를 통해서만 전체 평균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 뉴미디어의 활용은 평균보다 적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군집에 속한 사람들은 각각 뉴미디어 선호자와 전통 미디어 선호자로 명명할 수 있다.⁹⁾

이렇게 분류된 4개의 군집들을 종속변수의 범주로 설정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이전 단계의 분석에서 주요 분석 대상이었던 5가지 종류의 문화자본 측정 변수들을 독립변

8) 표에 들어가 있는 음영이 진할수록 다른 군집에 비해 해당 변수에 대해 높은 평균값을 갖는다.

9) 〈표 4〉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선거관련 이야기를 얼마나 주고받았는지를 측정할 [대면접촉] 변수의 평균이 '전통 미디어 선호자'에 비해 '뉴미디어 선호자'들 사이에서 높게 나왔다는 점을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K-mean 군집분석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각 군집 간 변수들의 평균차가 최대가 되도록 각 개인을 분류할 뿐, 통계적 유의성을 따져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표 4〉에서 3번, 4번 군집에 나타난 [대면접촉] 변수의 평균차가 0.15로 미미하다는 점 역시 이 변수를 전통 미디어나 뉴미디어 선호자 중 어느 한쪽과 연관 지어 해석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다.

수로 포함시켰으며 성별, 나이,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의 준거집단은 첫 번째 군집에 해당하는 정치 무관심자들로 설정하였다.

〈표 5〉에 나타난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의 정치정보 획득 유형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정치정보 획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표 5〉에서 나타난 모델의 종속변수들은 준거집단인 정치 무관심자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정보 획득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은 이 표에 나타난 여타의 다른 집단들에 속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 무관심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으로 나머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정치 정보획득에 보다 적극이며, 나이가 많을

수록 ‘적극적 정치정보 습득자’나 전통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 획득자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전통 미디어가 아닌 뉴미디어를 통해서만 정치정보 획득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이의 증가와 무관한 결과가 나타났다.

문화자본의 양과 정치정보 획득 유형의 관계에서는 적극적인 정보획득자일수록 더 많은 종류의 문화자본과 정(+)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신·구미디어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양의 정치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예술교육, 문화향유 등의 실제 행위와 관련된 문화자본 변수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양과 같은 자기인지적인 측면의 문화자본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정치정보의 획득 양이 그들 보다는 조금 적고 뉴미디어를 편애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제 행위에 기반을 둔 두 가지 문화자본 변수(예술교육, 문화향유)에

〈표 5〉 정치정보 획득 방식에 대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명	적극적 정치정보 습득자				뉴미디어 선호자				전통 미디어 선호자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절편	-7.897	1.06	***		-2.994	0.84	***		-4.182	0.80	***	
성별(=여성)	-0.536	0.23	**	0.585	-0.654	0.19	***	0.520	-0.632	0.18	***	0.531
나이	0.039	0.01	***	1.040	0.007	0.01		1.007	0.042	0.01	***	1.043
교육수준	-0.184	0.14		0.832	0.058	0.11		1.060	0.049	0.10		1.050
가구소득	0.179	0.06	***	1.197	0.105	0.05	**	1.111	0.160	0.05	***	1.173
예술교육	0.414	0.11	***	1.513	0.304	0.09	***	1.355	0.143	0.09		1.154
문화향유	0.515	0.06	***	1.674	0.290	0.05	***	1.336	0.174	0.04	***	1.190
문화선호	0.169	0.21		1.184	0.245	0.17		1.277	0.105	0.16		1.111
문화소양	0.642	0.23	***	1.900	0.061	0.18		1.063	0.190	0.17		1.210
부모교육	0.153	0.11		1.166	-0.135	0.09		0.873	0.032	0.09		1.033

* P < .1; ** P < .05; *** P < .01

L2	359.76	***
df	27	
Cox & Snell	0.286	
Nagelkerke	0.307	
N	1066	

서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통 미디어만을 정치정보 획득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지 문화향유와 관련된 문화자본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V. 토론과 함의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해왔던 정치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개인적 수준에서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이 가진 문화자본의 양이 정치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화자본의 양이 많을수록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정치정보를 획득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첫 번째 분석이었던 이원상관계수의 경우에는 미디어를 통한 정치 정보획득량과 개인이 소유한 문화자본량 사이에서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매체의 종류나 문화자본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정준상관분석을 통해서 특정 매체에 국한될 것 없이 모든 종류의 매체를 통해 정치정보 획득에 소홀한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문화자본에 있어 소유량이 적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며, 이는 정치정보 획득량과 문화자본의 관련성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시된 5가지 문화자본의 종류에서 ‘문화선호’와 ‘문화소양’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지적인 차원의 평가에 해당한다. 정준상관분석에서 유의미했던 또 하나의 변수군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하면, 이러한 종류의 문화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획득 매체들 중에서 특히 뉴스 전달 능력이 뛰어난

TV, 신문, 온라인 뉴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스로에 대한 문화적 소양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언제 형성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정보 획득 양이나 방식에 관한 변수들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¹⁰⁾, 최소한 스스로에 대한 문화적 소양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에 걸맞게 외부의 정치정보를 상당히 공식적인 (또는 공식력 있는) 통로를 통해 획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매체의 종류를 크게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로 나누었을 경우, 다양한 종류의 문화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정보 획득에 있어 전통미디어 보다는 뉴미디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통 미디어나 뉴미디어에 상관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은 양의 정치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문화에 관한 교육이나 향유 차원의 문화자본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차원의 문화적 소양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이었다.¹¹⁾ 하지만 뉴미디어만을 주로 선호하는 사람들의 경우 문화소양 변수와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으며, 전통 미디어만을 정치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선호하는 사람들의 경우 문화적 소양뿐만 아니라 과거에 예술교육 경험을 통한 문화자본의 획득과도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본 연구가 앞으로의 후속 연구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문화와 정치의 접점을 찾는 노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지만 그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문화의 정의를 가장 일반적인 수준으로 단순화시킨 후, 사회 구조나 집단의 차원에서 수행된 거시적 분석들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화와 정치의 개념을 개인적 차원에서 쉽게 측정 가능한 문화자본과 정치

10) 이는 본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응답자가 매체를 통해 정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획득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얻어진 시사적인 지식이나 (정치)정보 등이 스스로의 문화적 소양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1)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문화자본의 양과 정치정보획득량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보로 변환시킨 후 실증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문화와 정치의 결합이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둘째,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문화자본이 단순히 막대한 정보획득의 의지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정보’라는 특정 정보의 획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문화자본과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여러 번 진행되어왔으며, 그 결과 개인이 소유한 문화자본이 다른 교육이나 소득수준 변수들처럼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거기간 동안 정치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어 문화자본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정보격차와 문화자본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정교화시켰다.

더 나아가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에서 정보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즉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문화자본을 폭넓게 소유한 것이 정치정보 획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개인의 문화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획득 의지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보격차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정책이 실제로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변수간의 직접적인 인과성을 밝혀줄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정보격차 문제의 해결 방안이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자본의 종류 및 미디어의 형태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문화자본이 어떤 형태의 미디어와 친화력을 갖는지를 제시하였다. 즉 보다 다양한 종류의 문화자본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정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획득하고 있지만, 보유한 문화자본의 종류가 문화향유 한 가지에 국한된 사람들

의 경우 뉴미디어보다는 전통 미디어를 통한 정보획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소유한 문화자본 종류에 따른 차별적인 미디어 선택의 경향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인 뉴미디어와 관련된 연구에도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본 연구는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탐색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설정한 목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몇몇 학문적 발견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발견들은 문화자본과 정치적 행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시작에 불과할 뿐,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 본문에서 열거된 ‘발견’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이 습득한 문화자본이 구체적인 정치 행위, 예를 들면 투표 참여나 정당 활동 등과 어떠한 인과적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의 문화자본 보유 여부에 따라 정치정보 획득 의지와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관관계를 말하며,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두 변수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적 요소와 정치요소와의 접점을 찾는 연구는 문화자본 또는 정치정보의 획득이라는 포괄적인 수준보다 조금 더 정교화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정치 행위가 어떻게 이들 문화적 요인들과 일상의 차원에서 결합되어 나타나는지 그 과정에 대해 하나씩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경자 (2009). 「문화예술교육이 학습자의 정서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권혁남 (2012). “2012 국회의원 총선에서 나타난 미디어 이용, 정치 냉소주의, 투표 참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12-겨울, 60: 28-51.
- 그람시, 안토니오 (1999). 『그람시의 옥중수고』(이상훈 옮김). 서울: 거름.
- 김문조·김종길 (2002).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36(4): 123-155.
- 박광배 (2004). 『다변량분석』. 서울: 학지사.
- 부르디외, 피에르 (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옮김) 서울: 새물결.
- 서우석·이호영 (2006). “문화취향이 정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정책』, 13(3): 197-218.
- 성도의·김세준 (201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술경영연구』, 23: 91-114.
- 이갑윤 (2011). 『한국인의 투표형태』. 서울: 후마니타스.
- 이영준 (2002). 『정준상관분석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석정.
- 이명진·최셋별·배영·서우석 (2008).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및 청소년 행복 지수.” 최인재·임지연·최형주 편.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III』 99-201.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 이상호 (2009). “문화 경제학의 쟁점과 가능성: 트로스비와 클레머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76: 176-204.
- 이세용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정보불평등.” 『정보화정책』, 9(4): 29-48.
- 이호규 (2009). “정보 격차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단 수준의 논의에서 개인 수준의 논의로.” 『한국언론학보』, 53(6): 5-25.
- 이호영·장미혜·박현주 (2006). 『문화자본이 정보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 06-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장미혜 (2002). “예술적 취향의 차이와 문화 자본” 『문화와 계급: 부르디외와 한국 사회』 홍성민 편저. 87-120. 서울: 동문선.
- 장정윤. 2012. 『새정치학』. 서울: 도서출판 J&K.
- 조현성·박근영·장세길 (2014).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 기본연구 2014-0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채오병 (2012). “지배와 저항의 문화정치” 『문화사회학』 한국문화사회학회 지음. 417-448. 파주: 살림출판사.
- 최셋별 (2012). “취향과 소비의 구별짓기” 『문화사회학』 한국문화사회학회 지음. 301-326. 파주: 살림출판사.
- 최셋별·이명진 (2013). “문화자본 지수의 개념화와 측정: 디마지오의 문화자본 지수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31-60.
- 최진우 (2012). “정치학적 문화 연구의 지형과 지평.” 『국제정치연구』, 15(1): 59-85.
- 헤이우드, 앤드류 (2014).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정치학』. (조현수 옮김)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홍성민 (2012). 『취향의 정치학: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읽기와 쓰기』. 서울: 현암사.
- 홍원식 (2012). “미디어가 대학생의 투표 참여 의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SNS와 매스미디어의 차이를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8: 235-268.
- Aschaffenburg, Karen & Ineke Maas (1997). “Cultural and Educational Careers: The Dynamics of Social Reprodu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4): 573-587.
- Beer, Samuel H. (1958). *Patterns of government: the major political systems of Europe*. New York, NY: Random House.
- De Graaf, Nan Dirk., Paul M. De Graff., & Gerbert Kraaykamp (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73(2): 92-111.
- DiMaggio, Paul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t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2): 189-201.
- Erickson, Bonnie H. (1996). “Culture, Class, and Conne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 217-251.
- Johnson, James (2003). “Conceptual Problems as Obstacles to Progress in Political Science: Four Decades of Political Culture Research.”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5(1): 87-115.

- Kalmijn, Matthijs., & Gerbert Kraaykamp (1996). "Race, Cultural Capital and Schooling: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69: 22-34.
- Kroeber, A.L. & Clyde Kluckhohn (1952).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 of Culture*. Cambridge: Peabody Museum of American Archaeology, Harvard University.
- Norusis, Marija J. (2003). *SPSS 12.0 Statistical Procedures Companion*.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Inc.
- Putnam, Robert (2001).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eisinger, William (1995). "The Renaissance of a Rubric: Political Culture as Concept and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7: 328-352.
- Smith, Philip (2001).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Swedberg, Richard & Mark Granovetter (2001). "Introduction the Second Edition." In Mark Granovetter & Richard Swedberg (ed.)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1-28. Boulder: Westview Press.